

제주 방어유적의 복원·정비에 대한 제언

박 용 범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I. 서언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제주의 방어유적’이란 전시명칭으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특별전에는 제주시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후원 아래 그 동안 조사된 제주시 지역의 방어유적인 봉수(烽燧), 연대(煙臺), 환해장성(環海長城)의 현황사진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특별전을 기획한 이유는 봉수와 연대, 환해장성 등의 방어유적은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벗어난 형태로 복원되고 있고, 제주목관아를 비롯한 제주성지 등 주요 유적의 복원과 정비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성을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거미줄처럼 연결된 요새와도 같았던 조선시대의 방어유적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II. 방어유적 연혁

개설

고려 후기인 14세기 중엽부터 우리나라에 출몰한 왜구는 동·서·남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연해에 접근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진보(鎭堡)나 성곽(城郭) 등의 군사시설을 축조하였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의 산 정상에는 봉수(烽燧)를 설치하여 바다를 경계함으로써 해안 방어를 튼튼히 하였다.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시기에 왜구들의 제주 침범 기록을 통계로 보면, 1316년(충숙왕 3)에서 1556년(명종 11)에 이르는 240년 동안에 30차례가 훨씬 넘는다.

제주도의 해안지역은 고려 말과 조선초기부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군의 포진이 해안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는데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시설은 3읍성 9진 25봉수 38연대로 요약될 수 있다.

3읍성

읍성(邑城)은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렸던 행정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갖춘 읍치의 성이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제주읍성·정의현성·대정현성이 설치되었다.

읍성에는 보편적으로 옹성(甕城)·해자(垓字)·치(雉)·여장(女牆)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앞에 다시 두르는 성이다. 해자는 성벽을 따라 두르는 인공 연못으로 제주에서는 토양 특성상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 대신 가시덤불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앞에 다시 두른 성이다. 해자는 성벽 밖을 두른 인공 연못으로 성벽 앞에 설치된 또 하나의 장애물인 셈이다. 그런데 제주 토양은 특성상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 대신 가시덤불을 채워 넣기도 했다.

치는 성벽에 달라붙는 적병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끔 성벽 일부 구간을 앞으로 돌출시킨 구조물이다. 여장은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 위에 낮게 세운 담이다.

9진

9진(鎭)은 제주의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화북진·조천진·별방진·수산진·서귀진·모슬진·차귀진·명월진·애월진을 말하며, 방호소라고도 불린다. 본래 진은 변방의 방어를 위하여 북쪽 변방과 남부 해안지대에 구축한 군사 행정구역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특히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주로 남부 해안지대에 많이 설치하였다.

봉수와 연대

제주의 봉수는 25개소, 연대는 38개소가 있었다. 봉수는 봉(烽, 햇불:밤)과 수(燧, 연기:낮)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시설이다. 군사 목적으로 봉수를 사용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다. 제주에서 봉수와 연대 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본격적인 군사적 통신 시설로 사용된 것은 조선 세종 때의 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세종 29년(1447) 경에 확립되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평시에는 1개, 황당선(荒唐船)이 나타나면 2개, 지경에 가까이 오면 3개, 지경을 범하면 4개, 접전하게 되면 5개를 올렸다. 신호체계는 기본적으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햇불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안개 및 구름이 끼거나 비바람이 불 때는 나팔이나 천아성(天鵝聲) 등의 각성(角聲)·화포(火砲)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봉졸(烽卒)들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하였다.

각 봉수에는 6명의 별장과 12~36명의 봉군이, 연대에는 6명의 별장과 12명의 연군(혹은 직군)이 배치되었다. 별장 2명과 봉군(연군) 4명 내지 12명이 1조로 구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였다.

환해장성

환해장성은 제주도 연안에 둘러져 있는 성을 말한다. 고려 원종 11년(1270)에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지로 삼아 고려 조정에서는 영암부사 김수(金須)와 장군 고여림(高汝霖)을 제주도로 보내어 삼별초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여 환해장성을 쌓았다. 한편 삼별초에게 패한 뒤에는 관군을 방어하기 위해 삼별초가 환해장성을 계속 축조하였다.

환해장성은 주위가 3백리라고 하지만 연속해서 해안선을 따라 쌓은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적이 상륙하기 쉬운 곳에만 방어의 목적으로 쌓은 것이다.

Ⅲ. 제주시 지역 방어유적 복원·정비 현황

제주시는 1970년대부터 방어유적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0년대에 집중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루어진 복원은 당시 원형에 대한 고증이나 기초적인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대부분이 원형과 달리 복원되었다.

연대는 봉수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적의 침략 때에 자체적으로 응전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기능과 요새적인 기능을 같이 수행하였다. 거화시설인 연대(煙臺)나 연소실(燃燒室)을 비롯하여 방어시설인 호(壕)와 방호벽(防護壁), 봉수군의 생활시설인 주거용 건물과 고사(庫舍)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갖추게 된다. 방호벽은 방화장(防火牆)·방화벽(防火壁) 혹은 방화석축(防火石築)이라고 하며 흙이나 돌로 담장처럼 두른 것이다. 따라서 방호벽은 봉수대에 근무하는 봉수군이 짐승으로부터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항시 불을 다루므로 거화시 실수로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화용 시설물이다.

현재 복원된 제주지역 연대는 천편일률적으로 석축을 쌓아 올린 제단과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위와 같은 시설들은 찾아 볼 수 없다.

제주시 지역 연대에 대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¹⁾

표 1. 제주시 연대 현황

명칭	보존상태	소재지	지정여부	현실태
별도연대	복원	화북동 1537	지정	1999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조천연대	복원	조천읍 조천리 2980-4	지정	1975, 2005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왜포연대	복원	조천읍 신흥리 784	지정	2004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진입로 미확보
함덕연대	원형유지	조천읍 함덕리 3276	지정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잡목이 우거져서 형태를 조망하기 힘들
무주연대	훼손	구좌읍 월정리 1400-5	비지정	표지석 설치
좌가연대	복원	구좌읍 한동리 1683-1	지정	2001년 복원. 고증없이 연소실과 방호벽 복원

1)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제주시 연대·봉수 및 한해장성 정비·활용계획』 p.29~57의 표에서 인용

명칭	보존상태	소재지	지정여부	현실태
입두연대	훼손	구좌읍 평대리 161	비지정	표지석 설치
종달연대	복원	구좌읍 종달리 449-1	지정	2001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수근연대	복원	용담3동 2290	지정	1978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조부연대	복원	외도2동 1974-1	비지정	2010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남두연대	복원	애월읍 신엄리 2780-1	지정	1977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애월연대	복원	애월읍 애월리 1970-2	지정	1987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귀덕연대	일부복원	한림읍 귀덕리 1178-2	지정	지대석만 남음
우지연대	복원	한림읍 귀덕2리 3977	지정	1976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죽도연대	훼손	한림읍 한수리 912-1	비지정	흔적 없음
마두연대	훼손	한림읍 한림리 1378-1	비지정	흔적 없음
배령연대	복원	한림읍 금릉리 1603	지정	2005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원형과 달리 복원됨
대포연대	훼손	한림읍 금등리 807-2	비지정	흔적 없음
두모연대	복원	한경면 두모리 2606	지정	2004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우두연대	훼손	한경면 용수리 4213	비지정	안내판 설치. 정면 일부만 남음

봉수의 축조형태는 둥글게 흙을 쌓아 올려 그 위에 봉덕시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밑에는 2층의 독(외호, 내호)으로 축조되었다.

연대는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나 제주도내 봉수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보존 및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봉수는 관에서 주도한 전망대·탐방로가 세워져 있거나 군사·경비 시설이 설치되어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표 2. 제주시 봉수 현황

명 칭	소 재 지	지정여부	현 실 태
사라봉수	제주시 건입동 387-1	비지정	1989년에 해체 보수됨. 연대처럼 석축으로 잘못 복원됨
원당봉수	제주시 삼양1동 700-3	비지정	넝쿨과 잡목으로 우거진 상태
서산봉수	조천읍 북촌리 2683	비지정	봉수 자리에 경비대 레이더 기지가 있음
입산봉수	구좌읍 동김녕리 1043	비지정	봉수 자리에 묘가 자리함
왕가봉수	구좌읍 한동리 2792-42	비지정	봉수 자리가 경장지 정리작업으로 훼손됨
지미봉수	구좌읍 종달리 산4	비지정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음
도원봉수	도두동 산3	비지정	표지석 설치됨. 정상부에 전망대 설치
수산봉수	애월읍 수산리 산1-12	비지정	봉수 자리에 경비대 시설이 자리함. 상부 토단이 일부 확인됨
고내봉수	애월읍 고내리 산3-1	비지정	봉수 자리에 오름탐방로 개설.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음
도내봉수	애월읍 금성리 1149-28	비지정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음
만조봉수	한림읍 상명리 산5	비지정	봉수 자리에 전망대 설치.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음
당산봉수	한경면 고산1리 산12	비지정	봉수 자리에 해안 초소가 설치

환해장성은 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었다. 복원 위주로 급격하게 정비되었기에 정확한 조사나 고증 없이 복원사업이 이루어졌다. 문화재를 지정할 당시에 가장 잘 남아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과 복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지정된 문화재가 가장 원형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환해장성은 제주 전 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해안도로 개설, 양어장 증·개축, 각종 건축행위 등으로 인해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3. 제주시 환해장성 현황

명 칭	보존상태	소 재 지	지정여부	현 실 태
한 동 환해장성	일부 훼손	구좌읍 한동리 1694-1 일대	지 정	2004, 2006, 2008년 복원. 이질감이 있는 석재로 복원됨
행 원 환해장성	일부 훼손	구좌읍 행원리 80-3 일대	지 정	해안경비초소가 있음, 주변 환경정비 필요
동 복 환해장성	일부 훼손	구좌읍 동복리 687-5 일대	지 정	2004년 복원
북 촌 환해장성	일부 훼손	조천읍 북촌리 393-3 일대	지 정	펜션 및 양어장 있음. 주변 환경정비 필요
삼 양 환해장성	일부 훼손	삼양3동 2622-1 일대	지 정	주변 환경정비 필요
별 도 환해장성	일부 훼손	화북1동 1533-1	지 정	2001~2004년 복원. 연도별 구간마다 이질감이 있는 석재로 복원됨
곤 을 동 환해장성	일부 훼손	화북1동 4363 일대	지 정	주변 환경정비 필요
애 월 환해장성	일부 훼손	애월읍 애월리 1947-4 일대	지 정	주변 환경정비 필요
하 도 환해장성	일부 잔존	구좌읍 하도리 395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평 대 환해장성	일부 잔존	구좌읍 평대리 515-11 일대	비 지 정	2개 구간. 해안도로와 양어장 인접
월 정 환해장성	일부 잔존	구좌읍 월정리 730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함 덕 환해장성	일부 잔존	조천읍 함덕리 3283-3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조 천 환해장성	일부 잔존	조천읍 조천리 905-2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신 흥 환해장성	일부 잔존	조천읍 신흥리 913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와 양어장 인접
신 촌 환해장성	일부 잔존	조천읍 신촌리 2375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고 내 환해장성	일부 잔존	애월읍 고내리 1233 일대	비 지 정	양어장 주변
귀 덕 환해장성	일부 잔존	한림읍 귀덕리 3082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수 원 환해장성	일부 잔존	한림읍 수원리 1014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금 능 환해장성	일부 잔존	한림읍 금능리 1619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월 령 환해장성	일부 잔존	한림읍 월령리 342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IV. 복원 방향 및 향후 과제

최근 몇 년간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다. 제주 지방기상청을 신축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지방기상청과 과거 공신정(拱辰亭)의 복원을 주장하는 지역 학술문화단체 간에 공방이 벌어졌었고, 결국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공신정 복원 부지를 내어주고 신축하는 위치를 일부 이전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 초에 건립되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공신정지는 과거 제주성의 대표적인 누정이었다.

공신정의 역사가 곧 제주성 수난의 역사이며, 복원을 둘러싼 논란과 진행결과가 바로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공신정은 원래 1653년(효종 4) 목사 이원진이 산지천 하류의 무너진 복수구를 복구하면서 그 위에 문루를 세워 공신루(拱辰樓)라 한 것이 처음이다. 공신루는 1808년(순조 8)에 한정운 목사에 의해 중건되면서 공신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원래 자리인 복수구에서 삼천서당 북쪽인 현재의 제주기상청 인근으로 옮겨진 것은 1831년(순조 31)이다. 이에연 목사가 홍수 때마다 홍문과 누정이 무너지고 물길이가 가까이 있어서 이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이전한 것이다. 공신정은 이후 1848년과 1884년에 이어 1904년 홍종우 목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중수된다.

공신정이 일제에 의해 헐리게 된 것은 1928년이다. 일제는 내선일체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국 각지에 일본식 신사를 조성하면서 공신정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그보다 앞선 1923년에는 제주성지를 헐어 제주항 축항공사에 사용하고 그 자리에는 측후소를 개설하였는데 현재까지 말쑥의 소지로 남았던 기상청의 전신이다.

앞서의 논의 과정에서 공신정은 복원될 위치를 확보했지만 정작 측후소가 지어지면서 훼손된 제주성지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일부가 남아 있는 제주성지에 대해서 주목했다라면 기상청 신축은 재고되었어야 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제주성 남문의 성벽과 함께 원형을 복원하여 제주성의 위용을 세상에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넘어가 버렸다.

제주목관아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문화층과 함께 문헌상에 나타난 주요 관아 건물이 확인되어 지난 2002년에 흥화각, 연희각 등 주요 건물이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이후에도 망경루 복원, 회랑 중축, 전시관 마련 등 정비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왕조시대 이전부터 제주역사의

중심이었던 관덕정 일대에 왕권통치의 근간이었던 제주목관아가 복원되어 구 도심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목관아는 지방관아이기에 경복궁이나 수원화성처럼 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객사 건물인 영주관과 관관 근무처인 이아(二衙)가 복원되지 않았지만 탐라국 입춘굿놀이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공연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개관 당시보다 외부방문객이 줄어들고 있어 무료개방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은 필요하지만 제주도민이 전시·문화·공연 장소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자면 제주목관아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복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원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실관계에 기초한 조사도 없이 수많은 연대와 환해장성이 복원되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한 별도 환해장성을 마주하고서 생경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 혼자 만이 아닐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비하지 못한 유적이 원형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남아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복원·정비해 나갈 것인가?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던지며, 글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 제주도(1996), 『제주의 방어유적』, 삼화상사인쇄소
-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5),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도서출판 각
- 김명철(2000), 「조선시대 제주도 방어시설의 연구-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강창룡(2015), 「제주의 방어유적-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130회 특별전 도록」